

필자와 비슷한 또래로 198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서른 중반의 아저씨 혹은 아줌마라면, 그 당시 한창 유행했던 휴대용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를 기억할 것이다. 대표적인 제품이었던 일본 S사의 W 상표를 가진 플레이어를 가방에서 꺼내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위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다. 등학교 길에 전영록과 김현식 같은 가수의 테이프를 들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FM라디오로 가위바위보나 별밤과 같은 프로그램을 듣기도 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 등학교 대신에 출퇴근을 하는 입장이지만, 눈에 비춰지는 모습은 예전 모습과 일견 비슷해 보이기도 하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무언가를 듣고 있는 모습은 줄곧 봐왔던 행태다. 하지만, 뭔가 다르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기까지 한다. 손에 든 기기의 액정화면을 통해 영화를 보고, 교육방송을 보고, TV를 보고, 게임을 한다. 시간은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

글 **임영모** 객원기자

PMP, 모든 미디어를 품에 안다

PMP라는 기기는 이제 그다지 낯설지 않다. PMP가 Portable Media Player를 나타낸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일 것이고, 최소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단말기' 정도로는 웬만한 현대인이라면 인지하고 있을 정도다. 다만 아직 호주머니 사정이 허락되지 않아 지름신을 바로 옆에 앉혀 놓고도 망설이게 되는 장비랄 수 있다.

MP3플레이어가 나왔을 때에도 비슷했다. 얼리어뎀터를 자처하는 사용자 부류가 고작 배터리 무게 정도의 조그마한 플레이어를 목줄에 걸고 다니면서 휴대용 음악



초기 PMP 제품에 속하는 아이리버 PMP120. 3.5인치 320*240 Transflective LCD를 갖추고 있다.

3~4년 정도 전의 일이다. 대표적인 MP3플레이어인 아이리버의 <iFP-100> 시리즈가 선보였던 것이 2002년 9월이었으며, 128MB의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한 제품마저도 획기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플래시 메모리가 탑재된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CD플레이어 형태의 것이 있었다. 이것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선전하긴 했으나 일반 CD플레이어와 별반 다르지 않고, 음원 파일을 CD로 제작해서 플레이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따



삼성 Yepp 시리즈 중 동영상 지원 기능을 넣었던 YH-999GS

라서 그다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플래시 메모리 제품이 출시되면서 MP3플레이어는 짧은 시간 안에 일반 사용자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휴대전화와 더불어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떠올랐으며, 작년 한 해 국내 판매량을 살펴보면 대략 1,000만대

정도가 소비자의 손에 들렸음을 알 수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에서 MP3 플레이어 기능을 갖춘 MP3폰을 출시하고, 이 역시 엄청난 실적 호조를 보였음에도 이러한 결과를 타냄으로써 MP3플레이어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사운드 기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유행은

곧바로 영상 기반의 콘텐츠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청각을 만족시켰던 것을 넘어 서서 이제는 시각적인 정보에 대한 사용자 욕구가 팽배해졌고, 이는 첨단 기술과 접목되어 PMP라는 기기로 탄생되었다.

IDC 등 전문기관에서 예상해보는 2006년 PMP 판매량은 세계적으로 230만대 정도, 국내에서 27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과 대비하여 볼 때에도 세계적으로는 약 200% 이상의 순성장세를, 국내 기준에서는 무려 1,300% 정도의 순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까지 일부 미니아 혹은 얼리어답터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PMP는 이제 서서히 대중의 손에서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도그스 트렌드의 대표주자 PMP

2006년의 IT 트렌드로 언급된 것 중 '도그스(DOGS)'라는 게 있다. 다분히 병술년 개띠 해를 겨냥한 말장난 같은 네이밍 같기도 하지만, 의미하는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설득력 있는 용어라 할 수 있다.

'D'는 디자인(Design)을 의미하며 올해는 IT 분야에서도 더욱 더 감성적인 측면을 살린 디자인 콘셉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휴대전화 시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초콜릿 폰 인기는 상품에 있어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며 소비자의 취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O'는 아웃도어(Outdoor)로 디지털 제품

의 외출을 의미한다. 정보가 우선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정보의 접근 가능 거리는 상당히 중요해졌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은 몸에 지닐 수 있으며 휴대가 간편하여 이동하기 편리한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G'는 기가바이트(Gigabytes)의 약자로 부연 설명이 없어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초기 128MB 정도의 용량을 보였던 MP3플레이어가 이제는 기가급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휴대전화의 메모리로도 기가 단위가 사용되고 있다.

'S'는 당연히 스피드(Speed)다. 특히 통신망의 속도 개혁에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선망에서 나오는 FTTH 부분이나, 무선망에서 회자되고 있는 와이브로와 고속 하향패킷접속(HSDPA) 등의 차세대 기술이 속속 상용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도그스의 대표적인 모델로 PMP를 꼽을 수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초기 투박한 디자인을 벗어나 세련된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현재 MP3플레이어 디자인이 다양하고 패셔너블해진 것과 같이 소비자 기호를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본다. 아웃도어 부분에서 보면 PMP는 초기 단순 기능에서 확장하여 DMB와 같은 방송 콘텐츠 기능과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은 차량용 콘셉 등까지 고려하여 발전하고 있다. 고용량 동영상을 주로 사용하는 PMP는 최근 100기가바이트 제품까지 나오면서 스토리지의 무한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며, 고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고 내보내기 위한 속도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무력무력 성장하는 PMP

PMP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생소하다면 휴대전화 세상을 참조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실 휴대전화의 발전 방향을 예상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PC의 발전 이력을 보면서 유추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초창기 휴대전화는 통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통화 품질 개선을 고객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삼았다. 걸면 걸리는, 잘 터지는, 아무 곳에서나 터져서 잠시 꺼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콘셉이 상품을 홍보하는 주된 방향이었다. 전화기니까 전화만 잘 되면 된다는 개념은 이동전화를 통해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슬슬 개념이 바뀌어 간다. 음성 통화는 물론 데이터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은 휴대전화를 단순한 전화기가 아닌 휴대용 IT 기기로 바꾸어 놓았다. 디지털 컨버전스에 대한 시도는 휴대전화에 MP3플레이어 기능을 붙이고, 디지털 카메라를 붙이며, GPS 인식을 통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붙여 나갔다. 게임기 기능도 넣어보고, 음주 측정 기능도 갖추며, 각종 문서 보기 기능 등도 포함하더니, 최근에는 DMB라는 기술을 통해 제대로 된 TV 방송을 접목시키기까지 했다. 또한, PMP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콘셉으로 삼성 애니콜 <SCH-V700>이라는 제품도 선보인 바 있다.

이러한 휴대전화의 발전 흐름을 답습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바로 MP3플레이어와 PMP 부류다. MP3부터 시작되는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흐름은, 단순한 음악 재생 기능(좀더 들여보자면 녹음 기능 정도가 있을 것 같다) 수준의 초기 제품에서 서서히 나아가 동영상과 사진 기능 등을 아우르게 되었다. 이 무렵 소니에서 PSP에 대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국내 상륙에 성공한 부분도, 이에 대한 대체재 성격의 PMP 시장 확대를 이끌어 내는 데 일조했다고도 볼 수 있다. 소니의 PSP는 가정용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을

〈표 1〉 업체별 MP3 판매대수

업체명	레인콤	삼성전자	엠피오	코원시스템	아이옵스
2004	287만8,000대	170만대	83만대	40만대	15만대
2005년 추정	370만대	370만대	60만대	80만대	15만대

〈표 2〉 전세계 PMP 판매예상량

(단위: 천대)

PMP 저장방식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Hard Drive	717.54	2,192.72	3,699.35	6,127.60
Growth(%)	149.0	205.6	68.7	65.6
Flash	54.01	139.96	236.13	391.12
Growth(%)	349.7	159.1	68.7	65.6
Total	771.54	2,332.69	3,935.47	6,518.72
Growth(%)	157.0	202.3	68.7	65.6

자료: IDC 2004

휴대용으로 만들면서 여기에 멀티미디어 재생 기능을 넣어 상당한 소비자 반향을 일으켰으나, PMP 제품들의 멀티미디어 호환성이 넓어지면서 시장 분산이 일어나게 되었다.

초창기 PMP의 단점 및 기능을 보완한 2세대 PMP 출시가 200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PMP의 장밋빛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2세대 PMP의 특징으로는 DivX 코덱만 지원했던 초기 제품에 비해 WMV7·8·9 등을 확대 지원하며, 기존 3인치 또는 3.5인치 LCD를 4인치 이상 와이드형으로 바꾼 것, 여기에 MP3 재생과 이미지 감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고성능 칩셋을 사용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제품들은 추가적으로 디지털카메라 기능 및 내비게이션 기능을 갖추기도 하고, DMB 기능을 포함하기도 하며, 외부기기 연결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확장 메모리 슬롯 등 다양한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다. 휴대전화에서 몇 년 간에 걸쳐 하나 둘 붙여나갔던 기능들을, 불과 1~2년 사이에 성공적으로 조합한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휴대전화와 차별화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2세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유통된 게 불과 몇 달 전의 일인데, 벌써 3세대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기도 한다. 동영상 및 MP3에 이어 내비게이션과 방송 콘텐츠까지 소화해낸 PMP는 이제 무선인터넷 기술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휴대전화 시장에서의 무선 인터넷 영역, PDA 유저들이 자부하고 있던 무선인터넷 영역 등에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는 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인치 이상의 충분한 디스플레이를 확보하고 있고, 터치스크린 방식의 입력 방식도 갖추고 있으며, 멀티태스킹 기능까지 지원하는 PMP의 장점을 고려해 볼 때, 무선 인터넷까지 끌어안은 PMP의 위상은 장밋빛이 아닐 수 없다.

사용자가 아무리 IT 기기의 휴대를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기기를 휴대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 휴대전화·디지털카메라·MP3플레이어·PDA·PMP·휴대용 게임기·USB 메모리·전자수첩 등 다양한 기기를 모두 끌어안고 다닌다는 것은 무리다. 호주

머니와 가방과 핸드백 등을 최대한 동원해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중복된 기능들을 갖춘 제품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세 가지 이상의 제품을 두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공 세 개 이상으로 저글링하는 모양새와 비슷해 보인다. 사람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신 부분과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부분으로 구별하여 두 가지 정도 제품을 주축으로 교통신용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바야흐로 올인원(All in One) 시대이니 말이다.

어떤 PMP가 나에게 어울릴까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뮤직비디오·다큐멘터리·교육 학습 콘텐츠 등의 영상 콘텐츠들은 사용자에게 청각보다 더욱 직접적인 시각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이러한 영상 콘텐츠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보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거세졌다. 휴대전화에서도 June이나 Fimm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영상물과 방송물 서비스를 시도했으며, 차량 내 DVD플레이어와 위성TV수신기 등도 그러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케 하는 물건이 바로 PMP다. 이제 PMP를 손에 든 풍경을 어렵지 않게 마주칠 텐데, 그러는 와중에 지름신이 강림하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본다. 어떤 상품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PMP의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고려해 봐야 한다. 사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볼 때 사용자에 원하는 부분이 단순히 동영상 및 M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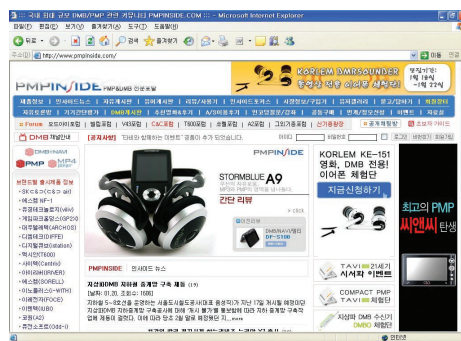
플레이어인지, 야외 활동이나 이동이 잦아 DMB를 통한 킬링 타임 콘텐츠가 필요한 건지, 어학학습을 위해 구간반복 기능이 있거나 교육방송 녹화 기능이 있거나 전자사전이 있는 제품이 필요한지, 카메라나 캠코더 기능이 꼭 필요한지 등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동영상 위주라면 지원하는 동영상 파일 형식이 많은지를 살피고(또한 데이터 전송 절차 등이 간편한지의 문제도 중요하다), 음악 청취 위주라면 음질에 대한 사용자 의견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게임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PMP보다는 PSP를 선택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 이러한 선택에 따라 가격은 30만원대에서 60만원대까지

지 무려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곤 한다.

최근 상품들은 4인치 이상의 화면을 채택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 액정 화면 크기가 커지면서 제품 크기도 무겁게 느껴지는 편이다. 300g 전후의 무게지만 여기에 부가적으로 따라다니는 가죽 파우치·이어폰·충전기·USB 케이블 등까지도 휴대한다고 치면 양이 상당히 많다. 남성 사용자들은 무게에 대해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않는 편이지만, 여성 사용자들은 무엇보다도 휴대하는

데 다소 애를 먹는 듯하다.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사용자 평가를 참조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제품이 따로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매장에 가서 비교 테스트를 해보는 게 낫다.

데이터 저장 용량에 따라 주로 20G, 30G 제품이 나와 있고 최근 100G 제품도 출시되었다. 아무리 용량 큰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더



PMP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사용 팁, 그리고 액세서리 공동구매 등을 할 수 있는 PMP 전문 커뮤니티 PMP인사이드(www.pmpinside.com). 관심 있는 제품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려면 반드시 둘러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매장의 가격을 비교해 주는 한 포털 사이트의 화면. 매장에 따라 동종 모델의 가격이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으며, 부가적인 사은품과 무이자 서비스 등도 비교할 수 있다.

라도 늘 공간이 모자라 찢쩍 때는 사용자가 있는 반면, 작은 저장 공간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게 마련이다. 20G 정도면 700MB 정도의 영상 콘텐츠를 25개 이상 저장할 수 있지만, 원래 성격상 모든 자료를 한 군데 넣어서 시시때때로 즐기는 편이라면 20GB 제품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다. 반드시 멀티미디어 콘텐츠만 담으라고 하드 디스크가 달려 있는 게 아니므로, 사무실에서는 주로 USB 2.0 기능을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한 데이터 전송 및 백업 장치로도 사용하게 된다.

구입 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 액세서리 관련 사항이다. 제품 구매 루트는 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자상가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가격 조회시 기본적인 제품 스펙에 대한 가격만 알고 결정했다가는 뒤에 발생하는 추가 지출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터치스크린 특성 상 액정 화면 보호를 위한 필름 구매 정도는 그리 많은 지출이 아니니 감수할 수 있지만, 휴대를 위한 가죽 파우치 별매, 유선 리모콘 별매, 추가 예비 배터리 별매, 자동차에서 듣기 위한 카팩 별매, 크래들 별매 등을 하다보면 10~2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 지출이 우습게 일어난다.

PMP 제품 구매 대상 리스트를 선정할 때, 스탠더드나 벨류 팩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참고로 PMP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는 전자상가 쪽이 낫지만, PMP 구매에 있어서는 전자상가보다는 인터넷 쇼핑 쪽이 더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구매할 제품을 결정하였다면 가격 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조사해 보도록 한다. 같은 제품에서도 3~1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곤 하며, 부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쿠폰 및 할인 이벤트와 연결만 잘 되면 최저가로 구매할 수도 있다. 또한, 카드 결제 가능하고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을 수도 있으며, 함께 제공되는 사은품들도 잘 챙겨보면 안방에서 쉽게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구매 시기다. 작년 초반에는 하반기에 출시될 2세대 PMP 개발

소식에 제품 구매 시기를 미룬 적이 있었다. 다양한 2세대 PMP의 출시는 PMP 장만을 학습고대하던 사용자들에게는 너무 좋은 소식이었지만, DMB 탑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제품 구매를 늦추는 사용자 층이 생겼다. 최근 위성 및 지상파 DMB가 탑재된 제품이 여럿 출시되었는데, 또 다시 망설이게 하는 소식은 무선인터넷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워낙 발전을 빨리 하다보니 구매 시기를 잡는 게 쉽지 않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 좋은 가격에 나왔다면 하루 빨리 구매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요령일 듯싶다.

PMP용 콘텐츠 수급이 당면 과제

정작 PMP는 마련했으나 콘텐츠 찾기가 쉽지 않다. PMP나 MP3플레이어 모두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콘텐츠 수급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수 있다. 사실 영화 콘텐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P2P 자료 공유 기능을 이용하거나, 대용량 자료실을 운영하는 곳을 방문해 보면 최근 영화는 물론 아직 극장에 개봉조차 되지 않은 영화까지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성인물을 원하든지 뮤직 비디오를 원하든지 간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개운치 못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나마 성숙한 마인드를 가진 네티즌이라 할 수 있겠지만, 크게 거리낌 없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내 것이며 모든 것은 무료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릇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최근 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Cinetizen.com)은 범법적인 일송과 함께 불법파일 유포로 피해가 큰 영화 수입·제작사로부터 저작권 고소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불법파일을 유포시키는 네티즌들을 신고하면 보상을 해주는, 이른바 '영파라치' 제도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불법 복제로 인한 영화 산업계의 손실규모가 연간 3,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는 MP3 콘텐츠에 대한 업계 및 사용자 인식 변화 과정을 겪은 바 있다. 제작된 말부

터 이어지고 있는 이동통신사 중심의 합법적 음반 음원 온라인 유통 프로세스의 성공, 박스의 유료화 등은, 사용자들 역시 저작권에 대해 공감하며 불법 유통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동영상 파일, 특히 저작권이 분명히 있는 영화 및 TV 콘텐츠, 뮤직비디오 파일 등에 있어서도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유통 구조가 필요해졌다. 주로 동영상 부분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식하고 여기에 일정 요금을 부과하는 모델이 주를 이루었으나, PMP와 같은 영상 플레이어에 보급될 경우에는 파일 다운로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동영상 파일에 대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 방식 도입은 필수이며 정상 유통 채널 도입 및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PMP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업체들의 입장은 '우리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테니,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구하여 쓰든지 간에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임 자세를 유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크게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영상 콘텐츠의 다운로드 부분에 있어,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 요청과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경우라면 PMP 시장이 바라다보던 2006년의 장밋빛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반면, 사이버외대(www.cufs.ac.kr) 등에서 2006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는 PMP를 이용한 e러닝 과정은 PMP의 기능을 학습 콘텐츠로 살려낸 사례라 할 수 있다. 재학생 대상으로 무상으로 PMP를 공급하며, PMP 기능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와 교과에서 다뤘던 문장·구문·단어를 MP3 파일로 제공하며, 학생들은 이러한 파일을 PMP에 다운로드 받아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게 된다.

MP3플레이어 시장에서도 초기 하드웨어 경쟁에서 출발하여 결국 콘텐츠 공급에 대한 것이 민감한 이슈 사항이 되었던 것을 고려해볼 때, 국내 PMP 제조업체들도 하드웨어 경쟁 못지않게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리뷰

실속파를 위한 PMP 맥시안 T600

작년 11월 맥시안에서 발표한 <T600> 모델은 '똑배기'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T600을 받음하다 보니 생긴 애칭이기도 하지만,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난 느낌도 일맥상통했다. 알짜배기 재료를 엄선하여 똑배기에 담아 폭폭 잘 끓인 찌개마냥 맛갈스러움이 느껴진다.

사실 기능상으로 따져보면 요즘의 컨버전스 분위기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 제품이 갖추고 있는 기능은 단지 영화보기·음악듣기·사진 보기·텍스트 보기·녹음·녹화하기 정도다. 또한 사용자 UI에 있어서도 터치스크린 방식도 아니고 전방에 위치한 버튼 몇 개와 내비게이션만으로 심플해도 너무 심플해 보인다. 요즘 다른 PMP들을 보면 기본적인 멀티미디어 재생 기능 이외에도 DMB 기능, 내비게이션 기능, 전자사전 기능은 물론 디지털카메라 기능까지도 갖춘 제품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자면 말 그대로 한 그릇의 똑배기이지 정찬은 아닌 듯 느껴진다.

하지만, 80 대 20 법칙을 응용하여 해석해 보자면 아무리 제품이 많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기능상 20%에 해당하는 주 기능이 80%의 사용 빈도를 갖는다고 볼 때 T600의 장점은 부각된다.

우선 PMP에서 가장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동영상 기능을 보면, 2세대 PMP이므로 당연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돋보이는 기능으로 다양한 동영상 파일 지원을 들 수 있다. 4인치 16:9 WQVGA(480×272) 1,600만 컬러의 TFT LCD를 통해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제품에서 지원하는 비디오 형식은 MPEG1·MPEG2·DivX3.1/4.xx/5xx·Xvid ISO MPEG4 SP·WMV9 등으로 폭넓은 지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특별히 추가 제공되는 기능이 AV

입출력단자를 통한 외부 기기 연결이다. 테스트를 하면서 TV에 연결하여 간이 비디오 플레이어로 사용해 보았는데, DVD급 화질은 아니지만 일반 비디오테이프 정도의 화질은 얻을 수 있었다. 단순한 개인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가 아니라 맥내 가전과 결합하여 또 다른 디지털 기기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PMP가 본격 출현하기 얼마 전 마니아 사이에서 한창 인기



맥시안의 PMP T600의 기본 구성품. 기본적인 USB 연결 케이블과 함께 외부기기 연결을 위한 AV 케이블과 Line in 케이블도 마련되어 있고, 무선 리모컨 등이 들어있다.



많은 기능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기능에 충실한 제품이라 평할 수 있는 T600 모델

를 끌었던 디박스 플레이어(디스플레이 부분이 없이 동영상을 담을 수 있는 하드디스크 스토리지와 동영상 플레이를 위한 코덱을 자체 지원한 제품)를 캐즘(Chasm)에 걸려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동영상 플레이어 기능뿐만 아니라 역으로 TV 콘텐츠의 녹화 기능까지 제공한다. 녹화는 MPEG4 SP 형식의 AVI 파일로 녹화되며, 해상도 640×480에 오디오 형식은 MP3 표준을 따르므로 TV 영상을 PMP에 녹화하

여 플레이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오디오 재생 부분은 일반적인 MP3플레이어와 별반 차이는 없다. 요즘 MP3플레이어의 액정 표시부가 커지면서 곡 정보는 물론 가사 출력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크게 특징될 부분은 없어 보이며, 오디오 스킨 기능이 있거나 음원의 변화에 따른 파형 시각화 등의 기능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단순해 보이기까지 하다. 음악 들



TV 등 외부 장치와의 연결을 통해 디스플레이의 크기나 TV 자체 녹화 기능 결여 등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기를 할 때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LCD 끄기 기능이 있어 굳이 화면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면 이러한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방전을 막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사진 보기 기능은 이미지 뷰어에 슬라이드 쇼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백그라운드 음악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진 보기 기능보다 눈여겨봐야 하는 기능은 사실 외부 디바이스와의 연결 기능으로, 디지털카메라 등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데이터 백업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별도의 문자 입력 장치가 없었으니 모든 부분을 컴퓨터와 연결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단점 등이 있으나, 20G 제품의 가격대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각종 할인을 적용한 최저 가격으로 파악했을 때 1월말 현재 35~37만원 선으로 형성되고 있어 4인치 액정화면을 갖춘 제품치고는 다른 PMP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기능상으로 화려한 제품보다는 꼭 필

요한 기능만을 담은 알찬 제품을 찾는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제품이라 할 수 있겠다.

욕심 많은 PMP, SK C&C air+

SK C&C에서 최근 출시한 <air>와 <air+>를 보면 PMP가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화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다. 지원 기능을 열거하자면, 비디오 플레이어, 오디오 플레이어, 사진 보기 기능은 두말 할 나위 없고, 전자사전·e북·만화보기 기능·음성녹음 등의 기능을 부가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위성 DMB인 TU 수신 기능과 내비게이션 기능(air+제품) 등 까지도 갖추고 있다.

4.3인치와 와이드 액정화면은 'PMP로 답답해서 어떻게 영화를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무색케 만든다. 480×272 1,600만 컬러의 TFT LCD 터치스크린을 사용하고 있어서 충분한 비주얼 환경을 제공한다.

PMP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아해할 부분이 어디선가 익히 본 모델 같다는 느낌일 것이다. 느낌은 정확히 맞다. PMP 아이스태이션 시리즈로 유명한 디지털큐브의 <V43> 모델과 쌍둥이 제품이다. 이 제품을 SK C&C에서 도입하여 여기에 위성 DMB를 얹은 것이 바로 air 라는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DMB 테스트를 위해 여러 장소에서 air 제품의 TU를 작동해 보았다. 보조 액세서리로 DMB 안테나가 있었으나, 그것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일반 길거리는 물론 달리는 지하철에서도 손쉽게 TU 망에 접속하여 영상 채널과 오디오 채널의 방송을 수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일반 도로의 터널 안에서는 신호 수신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지하철

구간의 캡슐러 설치보다 일반 도로 상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인프라 미비의 탓이 더 커 보인다. DMB를 지원하므로 별도의 TV나 라디오 등 외부 장치와의 연결 없이도 바로 콘텐츠 녹화 등의 기능이 가능하다.(물론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TV 등을 통한 출력 기능은 당연히 마련되어 있다.)

USB 호스트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 역시 큰 장점이다. 평소 PC와의 연결이 필요할 때에는 USB 슬레이브 기능을 선택하여 연결하면 되고, 기타 USB 통신을 지원하는 외부 기기(디지털카메라, 다른 PMP 등)가 있을 경우 USB 호스트 기능을 선택하여 연결된 기기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막강한 기능

을 선보인다.

마니아를 혹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이 제품이 리눅스 오픈 소스 환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사용자 혹은 디바이스 커스터마이징에 관심



플랫폼미인을 추구하는 SK C&C의 air+

이 많은 사용자라면 본 제품을 가지고 사용자의 특성 및 필요에 따라 콘텐츠나 UI 등을 변경 추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미 이 제품 관련 동호회에서는 각종 애플레이터와 활용 애

플리케이션들이 선보여지고 있기까지 하다.

내비게이션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air+ 제품에는 차량용 거치대, 차량용 충전기, 차량용 GPS 수신기, 차량용 통합 케이블 등이 들어 있어, 평상시 차량 밖에서는 휴대하고 다니면서 멀티미디어를 즐기고, 차량에 탑승해서는 해당 장치를 연결하여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하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불박이장처럼 고정되어 있는 반면, 이 제품은 착탈식 콘셉트로 볼 수 있어서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가격대는 60만원대로 다소 부담되는 게 사실. 위성 DMB를 청취하기 위해서는 TU 서비스 가입에 월정액 요금을 내야 하는 것도 은근한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DMB폰과 비교하여 본다면 충분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되는 DMB폰조차도 기껏해야 2인치 정도의 액정화면, 26만 컬러의 TFT LCD 수준임에도 TU 가입비나 이용료가 같다는 것을 염두 해 본다면 그리 무리한 가격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가뜰이나 올해 6월에는 독일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어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 한 차례 월드컵 마케팅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DMB 기능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충분히 편승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



지하철에서도 C&C air로 위성 DMB를 시청한다. DMB폰 보다 훨씬 큰 액정 사이즈로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다.